

유죄받은 경영진은 당장 사퇴하라!

금일(7월 24일) MBN과 MBN경영진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MBN이 종합편성채널로 출범하면서 편법을 동원해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상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다.

지난해 8월 26일 본사의 종편자본금 문제가 언론에 의해 제기된 후, 검찰은 같은 해 11월 관련자 3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앞서의 성명서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다시 한번 MBN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본 지부는 사건이 불거진 후 지속적으로 사측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관련자가 검찰에 기소된 시점에 장대한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MBN회장직을 사임'했을 뿐, 사측은 더 이상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본 지부는 사측에 1심 선고 전이라도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함을 여러 번 전달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판결이 난 이 시간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책임이 있고 상식이 있는 경영자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일반 기업보다 고도의 정직성과 공정함이 요구되는 언론사의 경영진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자리에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인데도 말이다. 그런데 기소가 되고, 스스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까지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 방송법 제 1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이들이 위반했다는 자본시장법에도 '자본시장의 공공성 ·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사법부로부터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판결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자본시장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겠는가?

법적, 도의적 차원을 넘어 매일경제신문이 그토록 강조해 온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준으로 봐도 더 이상 이들이 MBN의 경영진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위법했다고 판결한 이들이 계속하여 MBN에 남아 있다면, 이는 곧 MBN 구성원 모두를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구성원의 도덕성에 심대한 침해를 가하는 것이다.

그동안 MBN 직원들은 경영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이상, 이들 불법행위자를 용인할 수는 없다. MBN 구성원이 불법이 확인된 경영진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는 노릇이다.

아울러 장대한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대주주를 대표하여 국민들께 직접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간의 일에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경영, 윤리경영, 독립경영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

MBN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산을 넘기 전에 몸에 부담을 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올라야 가뿐히 오를 수 있다. 경영진 사퇴와 장 회장의 사과는 산을 오르기 위해 내려놔야 할 것 중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 해당한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줄곧 사측에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확보, 독립성 강화를 위한 소유 경영 분리, 방송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요구해 왔다. 단체협상에서 주장해온 주요임원의 임명동의제, 노조 추천 사외이사 도입, 외부 사장공모제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죄 판결은 받은 경영진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경영진 사퇴는 MBN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대국민 약속이다.

또한 MBN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 될 것이다. 이에 언론노조 MBN지부는 MBN경영진의 사퇴와 장 회장의 사과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투쟁할 것이다.

"단계적 투쟁으로 불법 경영진 사퇴 이끌어 낼 것"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MBN경영진의 기소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간 직접적으로 사퇴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사법부의 1심 판단이 나옴에 따라 그간의 사건 경과를 정리해본다.

1. 재판 상황

지난해 11월 12일 검찰에 의해 본사 임원 3인과 법인이 기소된 이후 현재까지 3차례의 공판이 열렸다. 지난 2월 7일 공판에서는 사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도 했다.

지난달 26일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있었다. 구형은 이유상 매일경제신문 부회장은 '징역 3년', 류호길 MBN 공동 대표이사에는 '징역 2년', 장승준 MBN 공동 대표이사에는 '징역 1년', MBN매일 방송에는 벌금 2억원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1심 법원 역시 지난 24일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유상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MBN 류호길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승준 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MBN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2. 방송통신위원회

제 4기의 임기는 7월말로 종료된다. 이와 아울러 임기가 종료되는 상임위원이 2명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김현 위원을, 통합당에서는 조만간 위원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MBN에 대한 행정처분을 4기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고려하였으나, 청와대에서 차기 방통위원장 선임을 예상보다 빠르게 하여 미뤄졌다는 후문이다. 8월에서 9월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3. 예상되는 행정처분

가. 허가취소

방송법 '제18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허가 취소는 가장 높은 단계의 제재로 MBN이 방송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승인 과정에서 승인을 못 받는 것과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재승인이 거부됐을 경우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사업자 교체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둘 수 있다. 방송을 계속하면서 1년 내에 다른 사업자를 물색하여 교체하라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 또한 만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허가 취소는 위와 같은 1년간의 유예기간도 없이 당장 방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와 똑같은 사례는 없으나 예전 동양화학이 대주주로 있던 ITV의 경우 대주주가 방송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지 않아 취소된 전례가 있다.

취소된 이후에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인력을 재고용하면 가산점을 주는 식으로 고용승계를 유도했지만, 강제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없어진 ITV의 구성원들은 회사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희망노동조합'이라는 조합을 구성하여 재고용이 될 수 있도록 투쟁을 하였다. 그 기간이 3년여에 이른다.

이와 같이 허가 취소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한다. 반드시 허가 취소가 나오지 않도록 MBN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 방송 정지 또는 광고 중단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18조 1항에 의해 위의 '취소' 외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취소보다는 약한 수준이지만, 이 또한 깊이 들여다보면 회사가 휘청거리는 수준이고 결국엔 직원들에게 그 피해가 바로 전달될 것이다. 방송정지를 당하면 이른바 '칼라바를 송출하게 된다. 이 기간이 몇 개월이 될지도 관건이다.

최대 6개월로 3개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 정파 기간에 방송을 못하면,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의 월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측이 선의를 발동하여 기존월급 그대로 줄 것인가?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는 이 방송정지를 빌미로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호기로 삼을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물론 사측이 위 2가지 경우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방송을 계속할 수도 있다.

하지만 11월에 정기 재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방통위를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이 MBN에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4. 노동조합의 주장

MBN 위기의 본질은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신뢰가 밥인 세상에 사법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경영진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

하고 있고, 또 그 행위를 용인하는 구성원으로 뭉쳐진 언론사가 있다고 치자. 이들이 만들어 내는 뉴스와 이들이 만들어 내는 방송을, 누가 신뢰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을 하겠는가? 도덕성은 경영진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그 행위를 질타하지 않는 구성원이 있다면 그 또한 치명적인 '도덕적 해이'의 하나가 될 것이다. 때문에 사법부로부터 법적 제재를 받은 경영진은 반드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며 우리 또한 그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5. 앞으로의 계획

이에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첫 번째로 유죄가 확정된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두 번째로 이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가 적힌 인쇄물을 각 층의 게시판에 게시할 것이다.

세 번째로 문구 및 생활용품에 사퇴구호를 인쇄하여 조합원 여러분께 배포하여 사내에서 사용토록 할 것이다.

네 번째로 노조 전임자들부터 근무 중 '사퇴구호'가 인쇄된 몸자보를 착용할 예정이다.

이후 투쟁의 수위와 방법은 1단계 투쟁이 끝난 뒤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여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다. 조합원들의 많은 지지와 동참을 기대한다.

※ 신규조합원 소개 ※
반갑습니다! 신입 조합원입니다.

 <p>안동균 안녕하십니까. 경력촬영기자로 입사하여 부산을 책임지고 있는 안동균입니다. 부산을 대표해 MBN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 매일 같이 성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p>	 <p>김형성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상취재부 대구지역 주재 기자로 일하게된 김형성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영상취재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p>	 <p>이재형 안녕하세요 보도국 영상편집부 이재형입니다.2011년에 경력으로 입사했는데 이제서야 가입하게되었습니다.스트레스 받지않는 웃으면서 일하는 슬기로소 회사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p>	 <p>양성훈 영상편집부 양성훈입니다. 스케이트보드와 서핑을 좋아합니다. 균형 잡힌 편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편집 업무관련 문의 부담없이 연락주세요.</p>
 <p>김윤찬 안녕하십니까 시사제작부 PD 김윤찬입니다. 현재 <굿모닝 MBN> 막내로 일하고 있습니다. 헬스와 사진 촬영을 취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p>	 <p>김진성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노조에 가입하게 된 영상취재부 27기 촬영기자 김진성입니다. 맑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는 믿음직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p>	 <p>강재욱 안녕하십니까 보도국 사회1부 강재욱이라고 합니다. 묵묵하게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부터 부족한 없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p>	 <p>김민형 안녕하세요. 보도국 사회1부 취재기자 김민형입니다. 좋은 선배와 동료들 곁에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아직 부족한 만큼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김형완 안녕하세요!! 제작국 소속 김형완 PD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p>	 <p>박규원 안녕하세요. 보도국 사회1부 박규원입니다. 현재 영등포 라인 출입하고 있습니다. 한 분한분 만나보고 싶은 관계 지속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p>	 <p>김태림 안녕하세요. 보도국 사회1부 김태림입니다. 종로 라인 맡고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방탈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재미있는 곳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p>	 <p>김현우 안녕하십니까. 신입 조합원 영상취재부 김현우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회사생활을 하겠습니다!</p>
 <p>이수호 안녕하세요 시사제작부 PD 이수호입니다. 현재 <MBN 종합뉴스> 팀에 있습니다. 많이 배우며 즐겁게 일하려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p>	 <p>정태진 안녕하세요! 사회1부 27기 정태진입니다.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소소한 행복에 감사함을 느끼고, 이를 표현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매사에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고 배우겠습니다.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박은채 안녕하세요, 자연인을 꿈꾸는 박은채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건강까지 찾을 방법을 연구중입니다. 잘 되길 기도해주세요. 행복드리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p>	 <p>배은수 제작국 신입 PD 배은수라고 합니다. 현재 교양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분들 반갑습니다!</p>
 <p>조동욱 안녕하세요 27기 조동욱입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캠핑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p>	 <p>홍지호 사회1부 사건팀 관악라인 홍지호입니다. 많이 듣고, 다니며 빠르게 전하는 인간미 넘치는 기자, 열심히 하는 밝은 후배로 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못 먹는 것 없고, 싫어하는 운동 없습니다.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p>	 <p>조동욱 안녕하세요 27기 조동욱입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캠핑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p>	 <p>홍지호 사회1부 사건팀 관악라인 홍지호입니다. 많이 듣고, 다니며 빠르게 전하는 인간미 넘치는 기자, 열심히 하는 밝은 후배로 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못 먹는 것 없고, 싫어하는 운동 없습니다. 불러주시면 달려가겠습니다.</p>